

각혈 환자의 폐절제술
-29례 보고-

부산의료원 흉부외과
박병률, 이용훈, 양석승, 이종수, 정수상.

폐질환으로 폐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여러가지의 증상과 징후가 있으나 각혈이 동반된 경우는 환자가 느끼는 증세 중 가장 두려운 것 중의 하나이다. 부산의료원 흉부외과 교실에서는 1990년 5월부터 1993년 4월까지 3년간 102례의 폐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중 각혈을 주소로 폐절제술을 시행받은 29례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성적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환자의 연령분포는 23세에서 67세였고,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남녀 발생 빈도는 각각 15명, 14명으로 남녀 차이는 없었다.
2. 환자의 질병분포는 폐결핵 12례(41.4%), 기관지확장증 9례(31.0%), 폐암 4례(13.8%), 폐국균증 3례(10.3%), 폐렴 1례(3.5%)였다.
3. 각혈의 기간은 1주일 이내 7례(24.1%), 1달 이내 4례(13.8%), 1달 이상 18례(62.1%)였다.
4. 기관지경검사상 확실히 출혈부위를 찾을 수 있었던 경우는 19례로 65.5%였다.
5. 출혈부위는 폐결핵의 경우 상엽이 12례 중 8례(66.7%), 기관지확장증의 경우 하엽이 9례 중 8례(88.9%)로 각각 상엽과 하엽이 주된 부위였다.
6. 수술방법은 폐구역절제술 1례(3.5%), 단일폐엽절제술 14례(48.3%), 폐엽과 폐구역절제술 5례(17.2%), 쌍폐엽절제술 3례(10.3%), 전폐적출술 6례(20.7%)였다.
7. 술후 각혈의 결과는 완전회복 27례(93.1%), 약물치료(항결핵제)로써 회복된 경우가 1례(3.5%), 사망 1례(3.5%)였다. 사망의 원인은 폐암환자에서의 뇌전이였다.